

예배로의 부름		인도: 김성진 집사
찬양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찬송	천지에 있는 이름 중(80장)	다 함께
*교독문	69번	다 함께
*찬송	주 예수 우리 구하려(346장)	다 함께
기도		현윤경 집사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368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인 5: 죽어야 이루어지는 삶(로마서 12장 1-2절)		
*찬송	주님 주실 화평(327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읽을 성경: 시편 119(160절-끝)-12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예수님의 십자가**

-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

우리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시므로 주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마련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 1:3)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신 것이다(사 53:4).

그때부터 우리가 차지해야 할 바른 자리는 말석이다. 우리가 말석이 아닌 다른 자리를 요구한다면 아직 십자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삶은 주님과 십자가의 교제에 몰두하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에게 보좌를 허락하셨다(계 5).

우리도 주님에게 보좌를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갈 2:19~20)로 간주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여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바라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교제에 전념할 때 바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님은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힘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거할 때 비로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된다.

십자가는 우리가 거하는 처소이다.

우리가 피신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이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자신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환영하며, 부여잡고, 자기 것으로 삼을 만큼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는 주님의 권능, 곧 즐거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주님의 백성으로

오순옥

주님!  
여전히 제 스스로 살아온 모습은  
부정한 자이고 문둥이입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갈보리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고  
주님께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고 산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주님께 접붙임 받는 이곳에  
당신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인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거친 들 같은 나그네의 삶이  
한날한날 쌓여갈 때  
아가서 6장 말씀처럼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당신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김유진

주님!  
옛 사람으로는 이길 수도 없는  
세상의 하루 길이  
장차 영원한 그곳을 향한  
동행이라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어미 품을 그리워하는  
젖 땀 아이 같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하신 주님.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는 것 아니고  
주님께 속한 이 마음을 구할 때  
나의 해답은 오직 당신의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의로우신 나의 주님!  
잠시 스치는 생각조차도  
오직 주님이시기를  
오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기를  
내 평생 추구하고  
내 평생 구하는 것  
오직 주님이기를...

오직 예수님만 내 주님 되시기를  
이 아침도 간절히 구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2월 18일(7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